



등교 이후... 어린이들 코로나19 검사 '워킹 스루' 1일 오전 광주 북구청 공영주차장에 설치된 선별진료소에서 어린 학생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북구보건소는 학교 등교 이후 선별진료소 방문 인원이 급증하자, 기존 '드라이브 스루'로 운영하던 선별진료소를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유지하며 걸어서 검체를 채취하는 '워킹 스루' 형태로 변경해 운영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암·치매 등 난치성질환 치료제 개발 화순에 국가 면역치료 플랫폼 구축

공모 선정...국비 460억 투입

암·치매 등 난치성 질환의 차세대 치료 백신인 면역치료제를 연구·개발하는 '국가 면역치료 플랫폼'이 화순 백신산업특구에 들어선다. <관련기사 3면>

김영록 전남지사와 구충곤 화순군수는 1일 전남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한 '국가 면역치료 플랫폼' 구축 공모사업에 전남도(화순)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면역치료제 산업은 오는 2020년대 중반이면 165조원의 세계 시장이 형성되는 산업으로 최근 미국·일본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세계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라며 "우리나라도 이번 사업을 통해 화순백신산업특구를 중심으로 면역치료제 개발과 제품화를 위한 글로벌 경쟁에 합류하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국가 면역치료 플랫폼 구축사업은 국비 230억원을 포함해 모두 460억 원을 투입

해 2021년까지 화순전남대병원 부지에 센터(국가 면역치료 혁신센터·지상 5층 연면적 6300㎡)를 건립하고, 2024년까지 면역치료제 연구개발 및 제품화 사업비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전남대 의과대학(화순 전대병원)이 사업을 주관하며 국내 면역치료 전문가 70여명, 전남대와 광주과학기술원(GIST), 포항공대, 삼성서울병원, (주)박셀바이오·헬릭스미스·파미셀 등 바이오기업이 참여한다.

전남도는 "면역치료제의 국가 컨트롤타워" 격인 국가 면역치료 플랫폼 사업 확정으로 면역치료 관련 기업 30개사를 유치하고, 일자리 1000여개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하는 한편 항암 면역치료제 국산화, 신약 개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관련 산업·연구시설 집적화로 대형 국제 프로젝트인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전남 유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군공항과 별개로 광주 민간공항 무안 이전”

이용섭 시장 “리더의 약속 지켜져야...군공항 전남이 협조 약속”
광주시, 산모에 500만~600만원대 출산·육아 수당 지급 추진

광주시가 광주 군 공항 이전과 별개로 광주 민간공항의 전남 무안공항 이전·통합을 진행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또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아이를 낳은 산모에게 500만~600만원대 출산·육아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담보 상태인 군 공항 이전과 별개로 민간 공항은 약속대로 전남 무안 공항으로 이전·통합하겠다고 1일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시청 브리핑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도 지사 간 협약이지만 시

·도민을 대상으로 한 약속인 만큼 지켜져야 한다”면서 “리더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광주 민간 공항 이전 의지를 확인했다.

다만, 이 시장은 “민간공항이 전남으로 이전하게 되면, 군 공항도 전남으로 가는데 (전남이) 적극 협조한다고 돼 있다”고 전제 조건을 달았다.

앞서 광주시와 전남도는 민선 7기 출범 직후인 2018년 8월 “광주 민간공항을 2021년까지 무안 공항에 통합시키겠다”고 합의했다.

그러나 전남 지역 사회의 반발로 광주 군 공항 이전이 후보지 선정 단계부터 가료막히면서 민간 공항 이전도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광주 군 공항 이전추진협의회는 최근 기자회견을 열어 군 공항을 옮기지 않는다면 민간 공항 이전도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시장은 “광주전남 발전을 위해 무안 공항이 빨리 (광주 민간공항과) 합쳐 국제공항다운 면모를 갖춰야 한다”면서 “다만 공항 이용객의 60~70%가 광주로 오게 되는 만큼 그분들의 편리성을 고려해 명칭에 광주와 전남이 합치는 의미를 담고, 태스크포스에서 논의하고 있으니 그런 정도 합의는 될 수 있으리라 본다”고 말했다.

김영록 지사와의 추후 공식 논의 일정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코로나19 대응, 전남의 방사광 가속기 유치 활동으로 정신이 없었다”며 “자주 만나는 게 좋으니 만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용섭 시장은 또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 만들기 사업의 하나로 출산·육아 수당 지급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첫째 아이 출산 시 580만원, 둘째 630만원, 셋째 이상 68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첫째 출산의 경우 축하금 100만원과 함께 육아 수당 형태로 월 20만원씩, 24개월간 480만원을 지원한다.

육아 수당(480만원)은 동일하지만 둘째는 축하금이 150만원, 셋째 이상은 200만원으로 늘어난다.

이 시장은 “낮은 출산율은 대한민국의 도전·위기 요소이기도 하지만 광주는 출산율이 특히 낮다”며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인 합계출산율은 광주가 1~3월 0.87명으로 전국 평균(0.90명)보다 낮고 지난해(0.96명)와 비교해도 떨어졌다”고 전했다.

이 시장은 “어려울 때마다 광주가 나라를 구했다고 하는데 ‘약무호남 시무국’이라는 여전회 유훈이라고 생각한다”며 “광주형 일자리”로 고질적인 고비용 저효율 경제 구조를 극복하고 인공지능 산업을 육성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출산율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광주시는 기존 아동 수당 등을 합쳐 출산 후 2년간은 매월 50만원 안팎의 수당이 지급되도록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확정해 조만간 발표하기로 했다.

/최원길 기자 cki@kwangju.co.kr

정부 ‘한국판 뉴딜’ 5년간 76조 투입

문 대통령 6차 비상경제회의
일자리 55만개 만든다

정부가 한국판 뉴딜에 앞으로 5년간 76조원을 쏟아붓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성장동력을 찾기 위해서다. <관련기사 15면>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AI) 생태계를 파격적으로 키우고, 초·중·고 교실에 와이파이를 까는 등 원격교육과 비대면 의료 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낡은 공공 임대주택 등 인프라를 녹색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지속가능한 일자리 55만개를 만드는 게 2022년까지의 목표다.

정부는 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6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고용안정 강화의 토대 위에 디지털과 그린 등 2개 축을 중심으로 한 ‘한국판 뉴딜’에 2025년까지 76조원을 대대적으로 투입할 계획이다.

현 정부 임기인 2022년까지는 디지털

뉴딜에 13조4000억원, 그린 뉴딜에 12조9000억원을, 고용 안정망 강화에 5조원 등 31조3000억원을 투입해 5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목표다.

먼저 디지털 뉴딜을 보면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공공데이터 개방, 국가망 5G 전환, 5G·AI 융합, AI·소프트웨어 인재 양성 등 2022년까지 가장 많은 6조5천억원을 투입해 일자리 22만2000개를 만든다.

모든 초·중·고 교실에 와이파이를 구축하고 일부 학교에 구형 노트북을 교체하고, 태블릿PC를 제공하는 등 디지털 기반 교육 인프라를 만들고, 행정법률 내에서 비대면 의료 인프라도 보강한다. 건강 취약계층과 만성질환자, 취약고령층 등 42만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기기와 웨어러블을 보급해 보건소와 동네 의원을 중심으로 비대면 디지털 건강관리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공공시설에서는 와이파이를 항상 쓸 수 있고, 도서·벽지에도 초고속 인터넷망이 깔린다. 주민센터와 보건소 등 공공장소 4만1000곳에 고성능 와이파이를 설치하고, 낡은 와이파이 1만8000개를 교체·고도화한다. /연합뉴스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인화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광주 군공항 끝없는 소음피해 소송 ▶6만
곳모닝 예약 ▶18·19면
KIA, 상위권 가려면 잔류 지워라 ▶22면

#PlayByYourRules

The New A-Class Sedan & The New CLA Coupé.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에서 직접 경험하세요!







Mercedes-Benz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6-0001 & 화정 서비스센터 (062)376-2557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화정동)
 MB 인종중고차 광주 전시장 (062) 945-0007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516(수원동)
 소촌 서비스센터 (062)942-7200 광주광역시 광산구 어등대로 603번길 20(소촌동)
 수완 서비스센터 (062)961-0090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520(수원동)

정부 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 A 220 Sedan (배기량 1,991cc, 공차중량 1,430kg, 자동7단, 복합연비: 12.7km/ℓ(도심연비: 11.2km/ℓ, 고속도로연비: 15.2km/ℓ),
 등급: 3등급, 복합CO2배출량: 135g/km) · A 250 4MATIC Sedan (배기량 1,991cc, 공차중량 1,515kg, 자동7단, 복합연비: 11.6km/ℓ
 (도심연비: 10.4km/ℓ, 고속도로연비: 13.5km/ℓ), 등급: 3등급, 복합CO2배출량: 148g/km) · CLA 250 4MATIC (배기량: 1,991cc,
 공차중량 1,550kg, 자동7단, 복합연비: 11.5km/ℓ(도심연비: 10.3km/ℓ, 고속도로연비: 13.5km/ℓ), 등급: 4등급, 복합CO2배출량: 150g/km)
 ※본 연비는 표주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 상태, 운전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제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상기 제품 이미지는 실 차량과 다를 수 있습니다.